

성명	조윤정	수험기간	2021.01.~2024.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기계공학과
키워드	기득 상표고득점 디보초고득점 1차_1문제_탈 2차_소수점_탈		

## 1차 공부

### 【들어가며】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득으로61기 변리사 합격하게 된 조윤정입니다. 매번 다른 합격자 분들의 수기를 읽으며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이렇게 제가 쓰게 되어 감사하네요. 1차 1문제 차이, 2차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고 재학 중 학리사로 붙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59회1차에서는80.8점으로1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60회1차에서는78.33점으로 컷보다7.5점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1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제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하루를 또 반복해야한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겪고 보니 시간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2차 공부도 좀 하다가, 1차 공부 다시 하다 보면 어느새1차 시험 날은 또 다가옵니다.

그 당시 제 스스로 다잡기 위해 한 생각은 변리사 수험 길은 그 누구도 등 떠밀지 않은 온전히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여태껏 해 온 공부가 물거품이 아니며, 1문제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1문제나 더 틀렸으며, 합격자들과 실력이 많이 차이 나며,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독하게 생각했습니다.

#### ☑ 1차 전반

하루11시간 기준으로, 민법4시간, 특허2시간, 상표1.5시간, 디자인1시간, 자연과학은 격일로 하루는 물리1.5시간 생물1시간, 하루는 화학1.5시간 지구과학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은 토요일 반나절 정도 쉰 것 같습니다. 1차는 학원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강을 보았고,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 【과목별 공부법】

#### ☑ 민법 [85점]

김동진 선생님의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1차 초시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중급강의와 민공연 풀이 강의도 시간만 되신다면 강력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시험 직전에는 최신5개년 판례 강의와 최신 변호사 기출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공연은ox 형태로 되어 있는데, 틈틈이5지선다로 푸는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집 따로 사지 않고, 그냥 기출 다운받아 풀고 민공연으로 오답 했습니다.

저는 시험 한 두 달 남겨놓고, 민공연이 너무 눈에 익어서 다른 시중 문제집도 추가적으로 사서 풀었는데, 이것도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단순히 편집 방법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보지 못한 사례형 문제나 지문들이 꽤 있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산업재산권법 [82.5점]

산재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공부법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기본서 회독과 조문 암기,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특히 조문 암기를 빠르게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재법의 기본은 조문이기도 하고, 이 때 조문을 열심히 외워두면 2차 공부 할 때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문제집을 엄청 반복적으로 풀어서 끝에는 한 50문제씩을 1시간 안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1차만 생각하고, 객관식 지문 ox 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본서와 조문집을 보면서 숲을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암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이해는 과정도 함께 수반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2차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 ☑ 자연과학개론 [67.5점]

물리랑 화학은 문제풀이 위주로 했고, 생물과 지구과학은 문제집도 풀었지만 개념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자연과학을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리랑 화학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생물과 지구과학을 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거고, 물리랑 화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그냥 시험 직전까지 계속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직전까지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기출 풀이

민법은 OX로 많이 푸시고, 특상디를 따로만 푸시고, 한 번에 푸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며, 자과의 경우도 물화생지를 한 번에 푸시는 연습을 할 기회가 보통 적습니다. 저는 이걸 실천처럼 한 번에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민법 산재 자과 모두 기출을 다운받아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 직전 한 달 정도에는 기존에 풀던 문제집은 오답만 하였습니다. 대신 매일 기출 또는 모의고사를 아침 민법1회, 점심 산재1회, 저녁 집 가기 전에 자연과학1회 풀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생각보다 민법 기출이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꽤나 어려웠던걸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기출은 문제집과 모두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채서 이상하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 ☑ 오답 체크의 중요성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였는데, 문제집 등을 풀 때 틀리면 횟수 대로 체크 표시를 해두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2달 정도 전부 터는 아는 문제들은 아예 페이지 삭제를 하고, 계속 양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또, 1차 때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2차는 글자 수가 많아서 손으로 하는 오답이 쉽지 않은데 비교적 1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3-4월부터 만드시기 보다는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보면 계속 틀리는 부분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만 따로 모아 전과목을 작은 노트(A4 절반 사이즈)에 오답하였는데, 민법 20장, 산재 10장, 자과 4장 정도였습니다.

## ☑ 2차에 있어 1차의 역할

1차를 끝내고 2차를 처음 맞이할 때 있어서 1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을 통해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본서파 일 수 있고, 누군가는 문제집파일 수 있습니다. 또 기본서를 정말 천천히 보는게 맞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여러 번 회독하는게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1차 공부를 되돌아보며, 2차에 적용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한 번을 보더라도 천천히 꼼꼼히 기본서를 읽는 게 맞는 사람이었고, 문제집을 1권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게 접하는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2차에서도 기본서 회독 수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려 했고, 사례집과 GS를 다양하게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2차 공부

### 【들어가며】

저는 동차 때 0.78점 차이로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때는 틀린 문제도 보였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득 시기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주는 하지 않고, 불합격자와 합격자의 간극은 크다고 스스로 상기하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으려 했습니다.

### 【시간 아끼기】 feat. Flashcards

저는 어떤 변리사님께서 여러분보다5분 더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붙는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수험생활 내내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서 자야 하는 사람이라, 1차 공부 때부터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4시쯤 이른 저녁을 먹고 책상에 엎드려서10-20분 자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자면 늘어질 것 같아서 책상에서 잤습니다. 또한 왕복 시간이 아까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했고, 밥도 같은 시간을 맞춰 집에서 먹었습니다.

왕복 시간10분도 아까워 항상 집을 오갈 때와 스터디카페를 가는 길과 엘리베이터,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모두flashcards 어플로 암기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던 운동을 모두 하지 않았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을 때만 아파트 안 헬스장 가서flashcards 보면서 런닝머신 탔습니다. 학원 왕복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3월에만 현장강의를 수강하고, 4월부터는 온라인 침식반을 수강해 평일에는 혼자 쓰고, 주말에는 고시반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 풀었습니다. 혼자 시간 맞춰 푸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SNS 멀리하기】

수험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인터넷과 SNS입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SNS를 멀리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아이폰 스크린타임 제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조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은 항상 사물함에 두었고, SNS는 비활성화하는 등 공부 외적인 요소로 방해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 【시기별 공부법】

#### ☑ 동차 시기

	3월	4월	5월	6월	7월+모의고사
민소	기본강의 기초GS	이창한 실전A	곽준형 실전A	이창한 실전B	GS복습
특허	기본강의 /사례강의		남솔잎 실전A	특상 콜라보(박형준)	GS복습
상표	기본강의		판례강의/ 김세원 실전A	특상 콜라보(한경훈)	GS 복습
디자인		1회독	1회독+사례집	1회독+판례	1회독+GS

## ☑ 기득 시기 (적지 않았지만 월별 민특상 기본서, 특상 판례집 1회독 이상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민소	기본서 회독시작	심화강의	통합사례 심화강의	곽준형실전B	양진하실전	이창한실전B
특허	기본서 회독시작 기본강의	판례강의 판례집 회독시작	사례집 상 특허 남술윙 클리닉	한승준실전A	박형준실전	기출10개년쓰기
상표	기본서 회독시작	기본강의	판례집 회독시작 기본강의	한경훈콜라보 이슬기 클리닉	김세원콜라보	기출10개년쓰기

	3월	4월	5월	6월	7월 + 모의고사
민소	곽준형실전A	이창한실전A	곽준형실전B	이창한실전B	
특허	박형준실전A	박지환실전A	박지환 콜라보 TOP 10 판례강의	박형준 실전 B 남술윙 실전 A	최종정리강의
상표	한경훈 실전A 김세원 실전 A	최지환 실전 A	최지환 콜라보	한경훈 실전 B	김세원 콜라보
디자인		기본서 회독 시작		김웅 실전	정다운 실전

## 【과목별 공부법】

### ☑ 매일 쓰기

저는3월에만 현장강의를 주말에 2GS를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12월부터 GS를 “매일” 작성하였습니다. 12월과 1월은23년도 GS를 50점씩 작성하였고, 2월에는 민소는 이창한 23년도 GS를 다시 어려운 부분만 쓰고, 특허와 상표는 기출10년치를, 3월부터는 24년도 GS를 작성했습니다. 7월에도 시험 하루 전을 제외하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50점씩은 매일 작성했습니다.

### ☑ 민사소송법 [동차 53.66점, 기득 57점]

\*주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부교재: 사례 민사소송법, 핸드북

\*추가로1번만 폰 교재: 윤곽 사례집, 흐름 기출사례집

\*23년도GS: 이창한 기초, 이창한 실전A, B, 곽준형 실전A, B, 양진하22실전

\*24년도GS: 이창한 기초, 이창한 실전A, B, 곽준형 실전A, B, 월비스 모의고사1,2회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기초GS, 실전GS A, B형을 수강하였습니다. GS는 동차시기에 3개, 기득시기에는 동차 시기 썼던 거2개 복습 포함8개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사례집은 통합 사례집, 통합 핸드북 모두 풀었고, 추가로 변리사 회차별 기출 문제집도 찾아 풀었습니다.

1차에서 접해보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 생각을 보통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절차법이고 고전적인 법 과목 중 하나로 문제 자체가 까다롭거나 복잡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당사자, 관할), 변론, 증거 등등 순서대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상상하면서 학습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판력도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생기는 거지, 그 기판력의 효력 범위에 대해 지금 배우는거지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자꾸 생각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문제를 푸실 때에도 이런 생각들이 Trigger로 작용하여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번쯤은 조문집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는 따로 시간 내는게 아까워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1달 동안 걸쳐서 보았습니다. 큰 숲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서는 <논점 제목>, <학판검>, <두문자>를 각각 다른 색으로 형광펜을 칠해 두었고, 사례집이나 GS를 풀면서 목차를 따두어 목차도 기본서 볼 때 함께 회독하며 외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기본서만 보더라도 사례집도 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 중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목차 포스트잇을 가장 많이 붙여 두었습니다.

### ☑ 특허법 [동차 56점, 기득 51.66점]

\*주교재: 준특허 기본서

\*부교재: 준사례 상, 준판례

\*추가로 1번만 푼 교재: 준사례 하, 준 최종정리자료

\*23년도 GS: 박형준 실전A, 콜라보, 남솔잎A

\*24년도 GS: 박형준 실전A, B, 남솔잎A, 박지환A, B

특허법은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실전GS 강의, 마지막 최종정리강의까지 수강하였습니다. 모든 강의가 기득 이상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으며, 저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다른 강사님의 사례집도 빌려 목차 구성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강사님 마다 목차 구성 스타일이 달라, 보면서 따라할 부분은 적어놓고 따라 하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을 하루에 모두 보았습니다. 준특허 기준으로, 기본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동차 때는 각주는 거의 보지 않았는데 기득 때는 각주도 3회독에 1번 정도는 보았고, 표시해 둔 부분이 있으면 보았으며, 대법원 판례가 있는 부분은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기본서 본문에 실려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하려 했습니다. 통상 1달에 1회독 했고, 7월 달에는 2주에 1번, 1주에 1번으로 줄여 나갔습니다.

판례집의 경우 기본서 진도에 굳이 맞추지 않았고, 처음에는 별 3개 이상인 것부터 시작해, 2회독 때는 전부를 보거나, 판례집 판례의 번호의 홀수, 짝수로 나누어 보기, 최신 판례 보기, TOP 10 표시 있는 거 보기 등 컨셉을 계속 바꾸어가며 지겹지 않게 회독했습니다.

사례집은 하권은 1번만 풀고 틀린 부분만 계속 오답했고, 상권은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기출 10개년치는 따로 풀답도 쓰고, 그 이후에는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목차를 잡았습니다. 준 사례집 상 가장 맨 뒤 페이지에 문항별 논점이 나와 있는데, 해당 논점 토대로 내가 기본서 공부했던 부분 몇 회차의 몇 번, 몇 번이 있구나 적어두고 해당 부분 풀었습니다.

동차 때는 보통 민사소송법의 양에 압도된다면, 기득 때는 특허법을 어디까지 해야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도별 기출을 살펴보면 해마다 전통 논점, 판례형, 사례 문제 풀이형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름길은 없고, 어떠한 형태로 나오던 잘 풀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전부를 모두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상표법 [동차 51점, 기득 60.33점]

\*주교재: 데생 기본서

\*부교재: 데생 사례집, 테마 판례집

\*추가로 1번만 푼 교재: 테마 사례집

\*23년도 GS: 한경훈 실전A, 콜라보, 김세원 실전A, 콜라보

\*24년도 GS: 한경훈 실전A, B, 김세원 실전A, 콜라보, 최지환 실전A, B

상표법은 강사님들 교재와 강의가 모두 좋아서 저는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컴팩트하고, 목차의 틀이 좋다고 느껴져 메인은 데생 기본서를 택했습니다. 동차 때, 테마 판례 강의를 들은 덕에 굳이 기본서와 판례집을 같은 책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테마 판례집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과목 기본서파였기 때문에, 상표법도 기본서 위주로 회독하였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상표법을 깊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다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만 따라 하신다면 상표법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전과목 중에 가장 수학적인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4조1항13호의 경우 적용 요건으로 국내외 수요자/ 특정인 출처로 인식/ 상표 동일 유사/ 부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건 별로 또 해당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 지를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재미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줄줄 읽고 외우기보다는 각각의 요건들을 일단 딱딱 떠올리실 수 있도록 뼈대를 학습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1달에 1번은 회독하였고, 7월에는 회독 주기를 줄여 나갔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였지만 상표법은 판례 또한 중요합니다. 기본서 진도와 무관하게 판례집을 따로 회독하였습니다. 1달에 1번은 회독하려 하였고, 4-5월 되어서부터는 너무 눈에 익은 판례들은 X표시를 해 가며 줄여 나갔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찍히는 중요 판례들은 판례 원문과 케이스 노트에서 하급심 판례들까지 찾아 공부했습니다.

대생 사례집의 경우 변리사 기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가 꽤 많아서, 2회독까지는 모든 문제를 풀고, 그 이후부터는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 나갔습니다. GS와 다른 기출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례집 풀며 얻은 교훈들(ex) 상표가 여러 개면, 상표별로 판단한다, 상품별로 판단한다 등을 써두고 포스트잇을 해 둔 다음 시험 직전에는 해당 교훈들만 모아 읽고 갔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좋아 보여서, 욕심껏 GS를 풀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저는 3월 GS 부터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GS에서 가독성 모답을 한 것을 비추어 보면 그 때부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고, 굳이 저렇게 많이 풀어야 했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반드시 많은 GS를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목차만 잡아보거나 문제만 읽어보고 불안감을 떨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 디자인보호법 [동차 56점, 기득 77점]

\*주교재: 태틱 디자인보호법

\*부교재: 김웅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김웅 판례(GS시간에 나누어주신 자료)

\*23년도GS: 김웅 실전

\*24년도GS: 김웅 실전, 정다운 실전

생각지 않게 디자인보호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발표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선택과목 자체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디자인보호법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1차를 2번 이상 치신 분들은 1차 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지 않아 저작권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정답이 틀렸을 때 리스크가 커서 공학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GS를 1set 만 풀고 가시는 등 GS연습 자체는 많이 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저도 몇 개는 목차만 잡아보고 해서 많이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법, 상표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특허법과 상표법의 지식을 총동원 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김웅 변리사님의 사례집 책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딱 1번만 푸시거나 눈으로만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에 디자인보호법이 걱정되어 동차 때 풀던 사례집을 꺼내 새로 사지 않고 다시 눈으로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고, 거의 모든 논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차 때 디자인보호법 과락을 하셨거나, 동차 때 다른 과목 선택하셨다가 기득 때 디자인보호법으로 바꾸셔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볍게 살펴보면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디자인보호법 1문항이 70점(23.3점)으로 높게 나온 것 같아서 복기본을 살펴보니 설문(2)와 설문(3)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설문(1) 공유해보겠습니다.

1. 을의 지위- ~ 디자인권자다.
2. 병의 지위- ~ 유보업실 정효남~ 침해자다.
3. 을의 조치  
(1) 민사상 조치- 침손신부(2) 형사상 조치- 침몰양(3) 기타 조치- 실시권
4. 병의 조치(1) 침해 소송 내 조치- 권리범위 부정X, 권리남용 항변O  
(2) 무효심판 내 조치(1) 무효사유- 무권리자(2) 발명자란~

쓰고 보니 별 거 없는 것 같긴 한데, 조치에 앞서서 지위를 검토한 부분이 인상이 좋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 ☑ 스테디

분 정도 민소와 특허, 민소와 상표 회독해 와서 암기하는 스테디를 만나서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시간을 쪼개 두 번으로 나누어1번은 민소15분 정도, 1번은 특허와 상표를 격일로 나누어15분 정도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15분 정도는 공부하다가 잠시 쉴 시간에 암기할 수 있어 좋았고, 말로 하니 조금이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입으로 잘 나오지 않아 빈 구멍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길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한 스테디입니다.

전화 스테디 뿐 아니라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Flashcards라는 앱을 통해 암기했습니다. 민소는 삼천포 특허학 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료를 얻어 그대로 외웠고, 그 외에도 민소, 특허, 상표 모두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엑셀을 작성해 집에 오가며 암기했습니다. 진짜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스테디를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혼자서도 Flashcards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구해 3명에서 9월부터 2월말까지 카톡으로 쓰기 스테디를 하였습니다. 주에 쉬는 날 없이 7일 모두 50점씩 쓰고, 문항별로 서로 아쉬웠던 부분을 피드백 하였습니다. 이 때, 다양한 강사님들을 들은 사람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다른 시각도 배울 수 있었고, 저의 잘못된 습관들도 지적 받아 고쳤으며, 같이 하신 분들이 특히 상표를 잘하셔서 제 상표 실력이 빠르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안지 피드백 스테디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 ☑ 답안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것 중 첫번째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2시간을 조금씩 넘겨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차는 어쩔 수 없지만, 기득 분들도 적어도 5-6월부터는 반드시 2시간 안에 맞춰 쓴다는 생각으로 GS 작성해주세요. 저는 스태워치를 1시간이 아닌 58분으로 맞춰놓고 풀었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번째는 가독성입니다. 천 권이 좀 넘는 답안지를 채점할 때에 있어 교수님들께서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펜과 손 자세, 손목 보호대를 찾고, 글씨를 크고 정갈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너무 예쁜 글씨일 필요는 없지만 잘 읽히는 글씨인지 주위 지인 분들이나 강사님께 여쭙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흐름입니다. GS에 나온 논점, 사례집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보다는 빌드업을 잘 쌓고, 어떤 논리 흐름인지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기계적인 답안 보다는 풀었다는 인상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 【마치며】

### ☑ 블로그 소개 [<https://blog.naver.com/yjpatent61>]

GS 오답 방법 등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면의 한계로 인해 전부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제가 기본서 형광펜 칠한 것이나, 기본서 공부 방법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의 말씀

어려운 시험에서 저의 노력만으로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감사드립니다.

수험 생활 동안 응원해 준 상산고 친구들과, 서강대 학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상담해 주셨던 서강대 변리사반 실장님들, 총무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 동차 끝난 9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 암기 스테디를 해 준 혜운 언니! 이번에 61기 동기로 함께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1차부터 2차 합격까지 지켜봐 준 남자친구 준연님 감사합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면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고 항상 자기 일처럼 고민 들어주고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묵묵히 저를 뒷바라지 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 ☑ 마무리

수험 생활은 정말 끝없는 어두운 터널 속을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월 그렇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수험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판례 1개 더 외웠음에 재미를 느끼고, 계획 세운 걸 해내며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하루 하루 지냈습니다.

수험생활 내내 <하루 하루 내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인드를 중시했습니다. 시험이 꽤 남은 시점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조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주어진 하루의 분량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하루 하루 너무 아깝게 소중하게 공부한 나의 지난 시간들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써내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과거와 같이 지금 인생에서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이상,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면 스스로 칭찬해주시기도 하면서 수험생활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금방 시험 날이 다가와 있을 겁니다.

수험생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